

제26차 임시이사회 의사록

1. 회의개요

- 가. 일 시 : 2016년 9월 7일 수요일 11:00 ~ 12:00
- 나. 장 소 : 티원(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소재)
- 다. 출석현황 : 총 재적이사 9명 중 7명 참석 및 감사 참석
- 라. 본인참석 : 김상헌이사장, 윤소정이사, 임영웅이사, 한태숙이사, 안호상이사, 김윤철이사, 우상일이사, 김성규감사
- 마. 특기사항 : 윤미경사무국장(간사)

2. 보고사항

- 제25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및 의결 처리결과 보고
- 국립극단 2016년 주요사업 실적보고

3. 심의안건

- 제1호 의안 : (재)국립극단 2016년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경정(안)

4. 의결결과

- 제1호 의안 : (재)국립극단 2016년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경정(안) - 원안가결

5. 기타사항

- 제26차 임시이사회 주요회의록 1부. 끝.

주요회의록

2016.09.07

○ 의 장 : 재단법인 국립극단 이사장

<성원보고>

이 사 장 : 국립극단 제26차 임시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간사께서는 성원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간 사 :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. 재적이사 9명중 7명 참석하셨고, 감사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.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.

이 사 장 :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립극단 제26차 임시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이사회에는 보고안건 2건, 심의안건 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고사항 보고, 심의안건 의결 순으로 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
<보고사항>

이 사 장 : 첫 번째 보고안건은 25차 정기이사회 의사록과 의결 처리결과입니다.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간 사 : 「제25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및 의결 처리결과」 보고함

이 사 장 : 보고사항에 대해 질문 또는 이의 있으십니까?

전체이사 : 없습니다.

안 호 상 : <조씨고아> 북경공연은 진행되고 있습니까?

김 윤 철 : 현재 비자 발급 준비 중입니다.

안 호 상 : 지금 중국에서 비자 발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

간 사 : 지금 신청 절차를 들어갔지만 결과를 회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

이 사 장 : 저희는 다른 얘기지만 우리 회사(네이버)에서 중국 콘텐츠 업체와 계약 시, 업체 측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업무 진행을 못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계약 조항을 주장하기도 합니다.

안 호 상 : 관광비자는 발급이 되는데 워킹 비자는 거르고 있다고 합니다. 경우에 따라 그런 것인지, 중국 정부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불명확합니다만..

간 사 : 공연 계약을 했는데도 그런지요?

안 호 상 : 김성녀 감독 공연도 비자 발급이 안 되어 취소되었다고 들었습니다.

이 사 장 : 일단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첫 번째 보고사항은 이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보고사항은 국립극단 2016년 주요사업 실적보고입니다. 간사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간 사 : 「2016년 주요사업 실적자료」 보고함

이 사 장 : 공연역량 강화를 통해 유료객석점유율 향상을 이끌어냈고 해외교류를 통해 흥미롭고 실험적인 작품을 제작한 것 같습니다. 주요사업 실적 보고를 받으셨는데 질문 있으십니까?

우 상 일 : 객석점유율이 100%를 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?

간 사 : 관객 요청으로 시야 장애석을 제공하여 수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.

안 호 상 : 잘 했다고 박수 한 번 주시고 넘어가시죠.

이 사 장 : 그러면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박수치며 두 번째 보고사항을 접수하겠습니다.

<심의안전 사항>

이 사 장 : 제 1호 심의안전은 (재)국립극단 2016년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경정(안)입니다. 안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.

간 사 : 「2016년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경정(안)」을 설명함.

이 사 장 : 보고 들으셨구요. 큰 틀의 변화는 없고 연출자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예산에도 변경이 있다는 것입니다.

김 윤 철 :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리극단은 1년 20편 안팎의 공연을 제작합니다. 이렇게 많은 작품을 제작하는 극단이 없고 연초에 “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”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작가 스톡만은 일본에서 연극 공부를 오래하고 근래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<더 파워>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은 아주 좋은 공연이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메르스 사태를 맞이하며 공연실적이 좋지 않아 안타까웠고 이번에 재공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올해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으로 연초 <겨울이야기>를 시작으로 연말을 <십이야>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. 그러나 연출가의 사정으로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대신 셰익스피어 초기 작품인 <실수연발>을 공연하기로 했습니다. 희극에 재능을 보인 서충식, 남궁호 두 분을 연출로 모시고자 합니다. 또한 <나, 말블리오>는 영국 문화원이 우리에게 호의를 제공한 것입니다. 관객 뿐 아니라 연극인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자 영국과의 교류에서 획득한 기회입니다. 이런 의의로 이사님들께 사업변경을 고려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. 작품 변경 후 이사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하며 의결을 바랍니다.

이 사 장 : 예술감독님 의견까지 들었구요.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간 사 : 팀 크라우치는 연출과 연기를 동시에 하고 한국에서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입니다. 공연기획팀장께서 설명하시죠.

공연팀장 : <나, 말보리오>는 팀 크라우치가 직접 쓰고 연출하고 연기를 합니다. 그리고 본인과 기술 스태프 한명, 단 둘이서 공연을 진행하는 것도 매력적이고 워크숍 강의까지 한다는 것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. 더구나 숙박비와 공연진행비만 부담하면 돼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

이 사 장 : 이사님들 의견 더 없으신지요? 이의 없으시면 제1호 안건 (재)국립극단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경정(안)을 가결토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보고안건, 심의안건 외에 더 토의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시 바랍니다. 없으시면 제26차 임시 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위 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에 기명날인함.

이사장 김상현 (인) 이 사 윤소정 (인)

이 사 임영웅 (인) 이 사 한태숙 (인)

이 사 안호상 (인) 이 사 우상일 (인)

이 사 김윤철 (인)